

## 영아무상보육에 예비비 6200억 與 국고지원 추진

여권이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4개월 만에 중단 위기에 처하자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5일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투입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당정이 이미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 12월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추가 예산수요가 8000억원(지자체 6200억원, 정부 2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협의를 거쳐 지자체 지원을 위한 6200억원 안팎의 예비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아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자치구 가운데 동구는 9월, 나머지 4구는 10월 이후 보육료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이달 중 2곳을 시작으로, 8월 2곳, 9월 5곳 등 순차적으로 무상보육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5일 구례 초원농장 방목장에서 젖소들이 푸른 초원을 노닐며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이 농장은 매일 10만㎡의 방목장에 젖소를 풀어 놓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실천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발 축산혁명 ‘동물복지 농장’

### 구제역 ‘0’... 넉넉한 사육면적·쾌적한 축사 전국 첫 녹색축산조례 이어 우수농가 선발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소 등 340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됐고, 3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친환경 축산 농가가 21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도는 당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구제역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동물복지형 축산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축산 현황을 들여다봤다. <관련기사 3면>

분만을 앞둔 암퇘지는 새끼가 압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폭 60cm의 좁은 쇠틀에 갇혀있어야 한다. 닭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A4용지 절반 크기의 케이지(닭장)에 갇혀 평생 알만 낳다가 죽는다. 이처럼 ‘집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던 축산 농가의 가

축들에게도 ‘동물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에 따라 5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가’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농가는 고품질축산물(송하국·이하 한우), 영광 청보리한우영농법인(유장호), 나주 이미숙농장, 강진 태산농장(김전갑), 함평 진숙농장(주재휘)과 구례 초원농장(박윤구·젖소), (주)다란팜(송홍주·닭) 등이다.

농림수산검역본부가 지난 3월 양계장만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했지만 닭, 소, 돼지 등 축산 전반에 걸쳐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선정한 것은 국내에선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전남도의 이번 공모에는 50개 축산 농가가 참여했고, 농업기술원과 해썬(HACCP,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기관 등 전문가들이 25개 항목에 걸쳐 평가했다.

전남도의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등의 동물에 따라 사육밀도를 엄격하게 제한받는다.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육우의 경우 번식우~송아지의 사육두수는 10㎡~2.5㎡당 2.5~5마리 이내여야 한다. 소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사육시설의 천정이 열려 수시로 햇빛을 쬐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닭은 편안하게 일어선고 날개를 뻗을 수 있도록 바닥면적 1㎡당 9수 이하여야 한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동물 운동장(방목장)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우 송아지를 위해서는 마리당 최소 2.5㎡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늘막과 일정 수질 이상의 급수시설을 놔야 한다.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편백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10곳에는 완벽한 형태의 동물복지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축산 분야 모든 지원책과 융자 등의 혜택을 1순위로 제공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판매망을 앞산·연계해줄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물복지형 축산=동물의 생태 습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만들고 고통을 최소화해 키우는 정책. 영국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가 정한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동물 복지를 위한 5대 자유 원칙’을 지켜나가는 축산 방법이다.

## 광주 수돗물 오염 피해 381건 시, 2억7000만원 배상 결정

### 수돗물 사고뎀 정부 직권조사

광주 수돗물 오염사태 때문에 피해를 본 381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5일 이르면 내년부터 오염된 수돗물 공급 등의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직권조사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용연정수장 수질사고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상 436건 중 381건이 수질사고와 직접적인 관련 있다고 보고 배상을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저수조 피해에 따른 저수조 청소비 배상이 250여 건으

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정수기 필터 교체 및 신체적 피해였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입증서와 의사수질사고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상 436건 중 381건이 수질사고와 직접적인 관련 있다고 보고 배상을 하기로 했다. 시는 수질사고와 관련해 배상 심의를 신청했던

사람들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한 뒤 이의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액 산정과 이의 신청 기간 등을 감안해 정확한 배상액과 배상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께 광주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서는 약품투입 밸브가 열리면서 강산성 응집제가 과다투입돼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이른바 산성 수돗물이 5시간 동안 공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기다렸던 그 논객들 금요일에 찾아옵니다

### 알림

매주 금요일 품격 높은 칼럼이 독자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논객과 각 분야에서 촌철살인의 필력을 과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4명의 필진은 독자 여러분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창사 60년의 광주일보가 마련한 격조 있고 품위있는 금요일 칼럼이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진중권의 ‘세상보기’

(49·중앙대 교양학부 교수) ▲서울대 미학과 졸업·동대학원 석사 ▲뮌헨 자유대 언어철학박사과정 수료 ▲SBS 러브FM 시사 프로그램 ‘SBS 전망대’ 진행 ▲중앙대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 김벌아의 ‘문학과 삶’

(43·소설가) ▲연세대 국어국문과 졸업 ▲‘달천 문 밖의 바람소리’로 등단 ▲소설 ‘미실’ 출간 ▲대산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여 ▲청년심산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세계일보 세계문학상



#### 김준의 ‘갯살이’

(49·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동대학원 지역사회학 박사 ▲목포대 연구교수 ▲국토해양부 연인습지 지주위원 ▲사남해갯벌 세계유산 등록 추진위원 ▲섬문화 답사기 출간 ▲섬과 사람들 사진전



#### 정병석의 ‘경제멘토링’

(59·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광주 지방노동청장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노동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에세이집 ‘이기는 청춘: 88만원의 함정을 뛰어넘는 법’ 저자



光州日報社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액 판매  
062)226-0001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Mercedes-Benz

더 넓은 세상을 보라!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600여명의 취재 기자와 전세계 35개국 46개 도시에 파견한 60여명의 해외특파원망을 통해 24시간 생생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로 우리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